



## 제61장 사 프

메디나에서 계시된 14절로 이슬람법 중의 일부인 전투와 하나님 적에 대한 성전, 하나님의 길에서 종교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자기 희생, 현세와 내세에서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될 수 있는 번창한 사업 등을 다루면서 주로 성전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대열에 서서 전투를 한다는 점에서 본장이 사프(전쟁의 대열)장이라 불리워지게 된 동기로 보고 있다(무함마드 알리 알사부니, 제18권 op. cit, p.41).

본 장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속을 위반해서는 아니됨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 적에 대한 투쟁에서 용감하게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 모세와 예수의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황과 모세와 예수가 하나님 사업을 위해 겪는 어려움과 고난등의 이야기를 언급하여 메카 불신자들에 대항하여 선교하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고, 하나님과 예언자들의 승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번창해야 함을 촉구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종교에서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본장을 끝내고 있다.

## 제 61 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1.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2.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뇨<sup>1)</sup>

3. 너희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스러운 것이라<sup>1)</sup>

4.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분을 위하여 대열에 서서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 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sup>1)</sup>

5. 모세가 백성들이여 너희는 왜 나를 해치려 하느뇨<sup>1)</sup>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너희는 알지 않느뇨 라고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외면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① سَمِيحٌ بِهِ تَأْتِي السَّمَ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وَهُوَ الْعَزِيزُ الْحَكِيمُ

②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مَ تَقُولُونَ مَا لَا تَعْمَلُونَ

③ كَبُرَ مَقْتًا عِنْدَ اللَّهِ أَنْ تَقُولُوا مَا لَا تَعْمَلُونَ

إِنَّ اللَّهَ يُحِبُّ الَّذِينَ يُقَاتِلُونَ فِي سَبِيلِهِ صَفًا كَأَنَّهُمْ  
بُنْيَانٌ مَرْصُوصٌ ④

وَإِذْ قَالَ مُوسَى لِقَوْمِهِ لِقَوْمِهِ لِمَ يَقُولُونَ تُوذُونَنِي وَقَدْ تَعْلَمُونَ أَنِّي  
رَسُولُ اللَّهِ إِلَيْكُمْ فَلَمَّا زَاغُوا زَاغًا عَرَا اللَّهُ قُلُوبَهُمْ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⑤

2-1) 실천할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교훈으로, 약속을 하고 말을 하고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이브누 까씨르는 풀이하고 있다. 위선자의 예증으로 3가지가 있으나 “약속을 하고서 위반하는 것,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짓 증언하고 그리고 믿으면 속이는 것이라”고 부카리와 무슬림도 전하고 있다(무크타싸르 타프씨르 이브누 까씨르 491/3).

3-1) 말을 하고 약속을 하면 꼭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

4-1) 하나님의 길에서 그리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 성전할 때는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적을 맞이하여 싸워야 한다는 교훈으로 적과의 전투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타프씨르 알푸르부비 821/18).

5-1) 모세의 백성들은 이따끔 모세에게 거역하고 고통을 주며 때로는 그를 욕되게 하였다(제33절 69절 참조). 또한 구약성서 민수기 제12장 1-13절에서도 모세를 욕되게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본질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위로하는 절로써 모세가 그의 백성의 모욕과 조롱을 인내했듯이 무함마드도 메카 불신자들의 모욕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위안으로 풀이된다.

벗어나게 하였도다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 하시니라

6.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sup>1)</sup>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말이<sup>2)</sup>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그러나 그가<sup>3)</sup> 분명한 예증으로<sup>4)</sup>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였더라

7. 이슬람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니라

8.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빛을 끄려하고<sup>1)</sup> 불신자들이 그것을 혐오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완성케 하시니라

9.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고 그것이<sup>1)</sup> 다른

وَلَدٌ قَالَ عَسَىٰ اِبْنُ مَرْيَمَ بَنِي اِسْرَائِيلَ اِنِّي رَسُوْلُ اللّٰهِ الْيَكُوْمُ  
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 مِنَ التَّوْرَةِ وَمِمِّسْرًا رَّسُوْلِي تَاْتِي  
مِنْ بَعْدِي اَسْمَاءُ اَحْسَدًا فَلَمَّا جَا اَهْلُهَا بِالْبَيِّنَاتِ قَالُوْا  
هٰذَا سِحْرٌ مُّبِيْنٌ ﴿٦﴾

وَمَنْ اَظْلَمُ مِمَّنِ افْتَرَىٰ عَلٰى اللّٰهِ الْكُذِبَ وَمُو يَدْعُ اِلَى  
اِلْسَالِمِ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لِمِيْنَ ﴿٧﴾

يُرِيْدُوْنَ لِيُظْفِرُوْا اُوْرَ اللّٰهِ بِاَوْاْهِمْ وَاِلٰهِهِمْ مَّرِيْمَ نُوْرًا  
وَلُوْكُوْرَةَ الْكُرُوْبِيِّنَ ﴿٨﴾

هُوَ الَّذِي اَرْسَلَ رَسُوْلَهُ بِالْهُدٰى وَنُوْرٍ لِّيُظَهِّرَ عَلٰى الدِّيْنِ

6-1) 유대 백성에 대한 예수의 임무는 마태복은 제10장 5-6절, 제15장 24절(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 하였노라...), 제15장 26절(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락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 아흐말 또는 무함마드는 "찬양받는 자"란 언어적 의미로 그리스어의 Pericyltos로 번역되어 있다. 요한복음 제14장 16절, 제15장 26절, 제16장 7절에 나오는 "Comforter"는 그리스어의 Paracletos의 의미(주창차, 돕는 자, 친절한 친구...)는 Pericyltos가 잘못 발음되어 Paracletos로 발음되면서 그 뜻이 영어의 Advocate로 번역되었다. 예수가 말한 원래의 말씀에서는 아흐만(Ahmad)란 이름을 가진 예언자가 온다는 것을 예언하였다(꾸란 제21장 107절, 제9장 128절 및 제3장 81절 참조). 한편 하디쓰에서도 선지자 무함마드의 이름은 다섯가지로 그 중의 하나가 이흐말이라고 전하고 있다(내게는 다섯가지의 이름이 있으니, 무함마드, 아흐말, 하쉬르, 마히 그리고 아끼브) 3) 예수 4)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장님과 봉사를 치료한 예증 등 하나님의 허락으로 예수가 보였던 모든 기적 8-1) 꾸란을 마술이라 욕되게 하여 하나님의 빛인 이슬람을 거역하려 한 불신자들의 행위 9-1) 선지자 무함마드를 통하여 계시된 꾸란

모든 종교 위에 두신 분이 하나님 이시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것을 싫어하더라

10. 믿는 사람들이여 상업을 가르켜 주리라<sup>1)</sup> 그것이 고통스러운 응벌로부터 너희를 구하리라

11.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며 하나님 사업을 위해 너희 재산과 너희 생명으로 성전하는 것으로<sup>1)</sup>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복이라

12.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오를 용서하사 강물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 안에 있는 아름다운 거주지로 인도하시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13. 너희가 좋아하는 다른 축복들도 있나니 하나님의 원조와 신속한 승리라<sup>1)</sup>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sup>2)</sup> 전하라

14.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라 마리아의

كَلِمَةً ذِكْرَةَ الْمَشْرُوقِينَ ﴿١٠﴾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هَلْ أَدُلُّكُمْ عَلَىٰ تَجَارَةٍ تُبْعَثُكُمْ مِنْ عَذَابِ إِلَهِكُمْ ﴿١٠﴾

تُؤْمِنُونَ بِاللَّهِ وَرَسُولِهِ وَتُجَاهِدُونَ فِي سَبِيلِ اللَّهِ بِأَمْوَالِكُمْ وَأَنْفُسِكُمْ ذَٰلِكُمْ خَيْرٌ لَّكُمْ إِنْ كُنْتُمْ تَعْلَمُونَ ﴿١١﴾

يَغْفِرُ لَكُمْ ذُنُوبَكُمْ وَيُدْخِلُكُمْ جَنَّا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وَمَسْكِنٍ طَيِّبَةٍ فِي جَنَّاتٍ عَدْنٍ ذَٰلِكَ الْفَوْزُ الْعَظِيمُ ﴿١٢﴾

وَأُخْرَىٰ يُحِبُّونَهَا ثَمَرَاتٍ مِّنَ اللَّهِ وَكَثِيرٌ مِّنْ قُرْبٍ وَبَيْتٍ مِّنَ الْمُؤْمِنِينَ ﴿١٣﴾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اتَّقُوا اللَّهَ كَمَا قَالَ عِيسَى ابْنُ مَرْيَمَ

10-1) 티자라 : 거래, 무역이란 의미로 어떤 것을 주고 그가 바라는 것을 얻은 것을 말한다. 즉 본절에서의 거래라 함은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은 소량이나 인간이 내세에서 받을 약속받은 양은 너무나 많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풍성함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제9장 111절 참조).

11-1) 성전(지하드)은 다음 3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유혹을 자제하는 것  
둘째,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배푸는 것  
셋째, 하나님 적에 대하여 자신과 재산을 바쳐 하나님의 종교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맘 파크리'는 풀이하고 있다(알타프씨르 알 카비르 316/29).

13-1) 적들에 대한 승리 또는 메카정복에 대한 승리라고 풀이된다. 이브누 압바쓰는 페르시아와 로마의 정복에 대한 승리라고 말하고 있다.  
2) 내세에서의 보상으로, 현세의 진리는 내세의 은혜로 연결하여 주는 교두보이다(타프씨르 알 바호르 알무히트 263/81).

아들 예수가<sup>1)</sup> 그의 제자들에게<sup>2)</sup> 하나님의 길에서 누가 나를 돕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대답했노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는 믿음을 가졌고 다른 무리는 불신하였다 그러서 하나님은 그들의 적에 대항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도왔으니 그들이 승리자가 되었노라

لِلْمُؤْمِنِينَ مَنْ أَنْصَارِي إِلَى اللَّهِ قَالَ الْمَوَدَّةُونَ عَنْ أَنْصَارِ  
اللَّهِ فَأَمَنْتَ طَائِفَةٌ مِنْ بَنِي إِسْرَائِيلَ وَكَفَرَتَ طَائِفَةٌ  
فَأَيَّدْنَا الَّذِينَ آمَنُوا عَلَى عَدُوِّهِمْ فَأَصْبَحُوا ظَاهِرِينَ ﴿١٤﴾

14-1) 마태복음 제16장 24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다(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 제3장 52절 참조. 예수의 12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또한 "바위되위"도 예수를 따라 믿음을 가졌던 12제자라고 풀이하고 있다(하쉬야 알바위되위 492/3).